



소궁
SO GUNG
PETIT PALAIS
KUNSTGALERIE

이희복 Lee Hevi-Bok
LIFELINE TO ETERNITY

Son Cha-Yong 손차룡
FROM-THE-UNIVERSE-IN-THE-BEGINNING

Vernissage

Donnerstag, 08. Februar 2018
18:00 - 21:00 Uhr

Ausstellung

Donnerstag, 08. Februar 2018
bis Samstag, 24. Februar 2018

Öffnungszeiten

Mi - Fr, 14:00 - 18:00 Uhr
Sa, 11:00 - 16:00 Uhr

작가소개

이희복

충북 청원생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경상북도 최고장인
우수숙련 기술인 (고용노동부장관)
경상북도 문화상 수상

도예가 이희복의 작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영원을 향한 생명선”이라는 명제 속에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을 조형의 근간으로 내세운 유형과 이와는 달리 와당 문양을 레리프한 조각들을 구성적으로 엮어 만든 독특한 미감의 두번째 유형이다.

<뫼비우스의 띠>와 연관한 작업들은 일정한 넓이의 흙띠를 점층적으로 쌓은 다음 마르기 전에 화장토를 분무하여 백색도를 높임으로서 유동적인 선의 흐름이 강조되고 있다.

와당문양을 주로 한 작업에서는 석고틀로 찍어낸 크고 작은 개체들을 접합 연결하여 전통적인 분청이나 청자를 현대적 미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손차룡

충북 보은생

11회 대한민국 미술인 해외특별공로상
2017 대한민국 언론협회와 대한민국 기자협회 주최 아트디렉터상.

2000년부터 15회의 개인전과 300여회의 국제 단체전 참가
2004년 프랑스 노르망디 Honfleur에 정착

프랑스예술가협회 회원
프랑스한국문화협회(Association Culture Coréenne) 아트디렉터

화가 손차룡은 동서양의 재료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그중 특히 한지의 특성을 이용한 독특한 화풍의 작품들은 “우주로 부터 시+공/ 태초”라는 제목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의 그림에는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하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늘을 숭앙하는 동서양의 자연철학이 반영되어 있다.